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b>보도자료</b> <b>(종합)</b>	2016. 2. 3(수)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통일안보정책과장 박용우 육군 중령 김국현 (Tel. 044-200-2126)
엠바고	즉시 사용		

## “북한 미사일 발사, 결코 용납할 수 없어”

- 황 총리, 3일 백골부대 찾아 “한 치 오차가 없는 철저한 대비태세” 강조
- “우리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도발행위 즉각 중단해야”
- 설 앞두고 軍 장병 격려, ‘나라,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힘 써주길 당부

□ 황교안 총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설을 앞두고,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이 알려진 2.3일(수) 중부전선 최전방 3사단(강원도 철원군) GOP부대를 방문한 황 총리는,
-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기습적인 4차 핵 실험을 감행하고 이어서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준비하는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도발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 “이는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발사를 감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 총리는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軍은 국가방위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야한다”면서, “우리 軍은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도발 시 확고한 응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 3사단장(남영신 소장)으로부터 부대 현황을 보고받은 황 총리는  
 흑한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나라,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힘  
 써주길 당부했다.
- 황 총리는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  
 다”고 말했다.
- 황 총리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여러분도 참으로 노고가 많지만  
 가족들도 더불어 국가방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다는 점을 감사  
 하게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부대에서도 정부의 그런 뜻을 알려주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황 총리는 백골전망대에서 부대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철책으로  
 이동하여 장병들의 경계태세를 확인하고 부대식당에서 장병 100여  
 명과 함께 오찬을 같이 했다.
-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장병들에게 “여러분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지켜지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백골정신\*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국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죽어 백골이 되어서라도 끝까지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불굴의 정신

- 한편, 3사단은 부대명칭이 ‘백골사단’으로 6.25전쟁시 최선봉으로  
 38선을 돌파(50.10.1)하여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제정하는 계기를  
 만든 부대로, 지난 1월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